

제4회 중앙아시아 성균 한글 백일장

학교	국립 동방학 대학교	성명	캐러브 바슬릿인	학년	3	생년월일	1991년 4월 24일
----	------------	----	----------	----	---	------	--------------

100

200

300

400

500

어머니 자궁에 있는 아이에게도 "길
"이라든 단어가 낯설지 않다. 왜냐하면,
그 자그마한 애는 이 밝은 세상에 나
오기 위해서 어느 정도 길을 건너야
한다. 태어날 때의 길은 그 사람의 인생
을 확인해 준다. 인간은 태어나고 살다가
다시 이 세상을 떠나기 마련이다. 이
긴 길을 어떻게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한번만 주는 기쁨을 어떤 식
으로 압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이 세
상에는 모든 것이 짝이 있다. 만약에
그 짝은 없거든 다른 하나의 가키도
없다는 말이다. 하늘과 땅, 천국과 지옥,
남성과 여성 및 조영과 조화가 있듯이
길도 딱 두 가지만 있다.
첫째는, 빠르고 밝은 길이다.
둘째는, 느리고 어두운 길이다.
어느 길을 양자택일하는 것이 그 사
람에게 달려있는 일이다.
저는 자기 길을 랑았다고 할 수 있
다. 이 길을 잘 건너기 위해 그 길에
나오는 가시들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한
다. 만일 가시 하나라도 발에 들어오면
상리가 생기고 온몸을 망화시킬 수도
있으니 까 광상 조심스럽게 가야 한다.

제4회 중앙아시아 성균 한글 백일장

학교	국립 동방학 대학교	성명	키드로브 바슬릿딘	학년	3	생년월일	1991년 4월 24일
----	------------	----	-----------	----	---	------	--------------

100

200

300

400

500

제련의 길도 관걸음부터라는 말이 있
 이 리도 켓걸음을 아주 어렸을 때 했다.
 부모님이 일반 평민이기 때문에 자기들
 이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산전수전을
 겪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제가 아직 말
 못하는 나이 때부터 열심히 공부했다. 아
 직도 기억에 난다. 4살쯤에는 어린이 책
 을 보고 이해할 수 있었다. 5살 때는
 자기가 시를 창작하고 할머니께 읽어 주
 았다. 그때 사랑스러운 할머니는 저에게
 "앞으로 네가 꼭 큰 사람이 되리라"
 라고 하셨다. 그때 저는 기쁜 마음으로
 의기양양하게 뛰어다니는 생각이 든다. 어
 려운 때부터 저는 하나의 꿈이 있었다.
 우리는 지방에서 살기 때문에 늘 수도
 에 가서 공부하고 싶었다. 왜냐하면, 제
 가 평생 한 곳의 토박이가 되고 우물
 안 개구리처럼 사는 것을 싫어하기 때
 문이다. 그래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했다. 드디어 그 꿈은 이루
 어진다. 타슈켄트 외교대학교 리제이 (ly
 ceum)에서 공부하게 된 날은 마치 가
 장 행복한 사람은 저뿐이다. 그 리제이
 를 마치는 마련에 제 인생에 또 하나
 의 길이 생겼다. 그 길은 바로 한국의

제4회 중앙아시아 성균 한글 백일장

학교	구리 동방학 대학교	성명	커디로브 바슬리딘	학년	3	생년월일	1991년 4월 24일
----	------------	----	-----------	----	---	------	--------------

100

200

300

400

500

로 데려다 주는 길이 있다. 그 때 제가 저
의 길은 한국이와 연결되어 있는 지 깨
달았다. 동방 대학교에 입학하게 만드는
등기도 바로 한국어라는 아름다운 단이
였다. 식은 가끔 너무나 외롭고 지겨운
때는 한국어가 저를 격려해 주는 역할을
한다. 한국 문화, 역사, 소설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책이나 드라마를
신경할 때 속이 시원해진다. 그 때는 꼭
한국어라는 꿈나라에 가서 직접 생활하
고 싶은 것이다. 제가 왜 자기 자신에
대해 시 쓰고 있냐면 지금까지 편너온
길은 모두 다 부모님 덕분이다. 그래서
아주 어린 나이에 애를 어떻게 키우면
좋은 때까지 그 길로 가는 법이다. 여기
까지 조금스럽게 데려다 주신 부모님께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보답이 되고 싶
다.
살다 보면 간혹 길을 잃은 보행자 처
럼 다니는 사람들이 보인다. 그들도 어
머니라는 소중한 사람의 과실이 있다. 문
제는 부모에 있다고 한다. 아무도 태어
나자마자 말을 하고 제대로 걸지 못하
다. 부모가 가르쳐주고 애를 키우는 역
할을 잘 해야 한다. 그 때는 각 부모가

제4회 중앙아시아 성균 한글 백일장

학교	국립 동방학 대학교	성명	커디로브 바슬릿딘	학년	3	생년월일	1991년 4월 24일
----	------------	----	-----------	----	---	------	--------------

100

200

300

400

500

자기 애들에게 앞으로 갈 길을 보여 주
 고 도와 주어야 한다. 아무 꿈이나 목적
 이 없는 사람은 이길 때 부모의 도움을
 못 받다고 한다.
 우리 이 생활 방식을 한번 생각해 보면
 관에서 학교까지 된 길을 각자는 다
 르게 간다. 어떤 사람은 걸어가고 또
 어떤 사람은 차거나 자동차로 간다.
 누군가는 개인 운전자사가 데려다 준다.
 더군다나, 기사는 손님들 만족스럽게 데
 려다 주기 위해서 노력한다. 어떤 기사는
 평평하고 긴 길을 건너가고 라는 자는
 울퉁불퉁하고 짧은 길로 간다. 하지만
 시간은 똑같이 걸린다. 필자는 평평하고
 긴 길을 건너면 줄타고 한다. 아무리
 길어도 안전하니까 마음 놓고 갈 수
 있다.
 인생은 세롭지 않다. 가끔은 슬프고 가
 끔은 기쁜 때가 있다. 그 인생을 의미 있
 고 감사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기능이
 다. 길을 잃은 사람에게 도와 주면서 사
 면 좋겠다. 세상 사람들이 빠른 길로
 가고 저로 도와 주며 더 빨리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면 한다. 한마디로 "길"
 은 "긴 인생의 로드(load)라고 할

제4회 중앙아시아 성균 한글 백일장

학교	국립 동방학 대학교	성명	커디로브 바슬리딘	학년	3	생년월일	1991년 4월 24일
----	------------	----	-----------	----	---	------	--------------

수 있 타 . 이 간 인 생 을 예쁘 게 살 과 고

말 라 고 싶 다 .

100

200

300

400

500